

한-호주 정상회담 오프닝

각하와 일행의 한국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6.25때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우방국가라고 우리 국민은 호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교류와 협력도 많고 장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에 노력해 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주가 살기가 좋고, 우리 국민들은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이고,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유학생이 많다는 뜻) 나라라는 것입니다.